

양혜규 작가 신작, 포르투갈 세할베스 현대미술관에 전시

20 June | 권혜진 기자

양혜규 작가의 신작이 포르투갈 포르토에 있는 세할베스 현대미술관에 전시된다고 국제갤러리가 20일 밝혔다.

국제갤러리 소속 작가인 양 작가의 신작 '불투명 바람이 부는 육각 공원'은 세할베스 미술관의 야외공간에 오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시된다.

서로 다른 3가지 색깔의 벽돌로 지어진 이 작품은 똑같은 크기의 5개 탑으로 구성됐다. 탑의 끝 부분은 아치 형태로 마무리됐으며 다양한 크기의 무동력 흡출기가 달렸다.

양 작가는 특정 구도에 맞춰 야외공간 이곳저곳에 탑을 배치해 기하학적 구조를 완성한다.

또 공원의 식물이나 새를 위한 물통 등을 설치해 6개월에 이르는 전시기간 동안 계절 및 풍경 변화가 작품과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.

이처럼 탑과 벽돌, 야생환경이 집합체를 이루는 이 작품은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역사회 간 상호 관계와 공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고 국제갤러리는 작가의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.

1999년 설립된 세할베스 현대미술관은 전시와 출판, 공공프로그램 기획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한 미술관으로, 양 작가의 '소리나는 조각' 연작을 이미 소장하고 있다.

